

인간은 언제나 사회를 통해 삶을 영위해왔다. 그런데 이런 생존의 필수 조건은 개체들 사이에 결속을 만들어주는 작위적 장치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강제적인 권력에서 자발적인 협동 의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다른 한편 사람에게는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속성이 함께 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은 근대 사회 이후에 꾸준히 증가돼왔고, 탈산업사회 단계에 접어들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그것은 사회 전체의 대대적인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재건할 희망은 있는가?

### 개체화 억제하던 사회적 장치 느슨해져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대붕괴 신질서》(원제목은 'The Great Disruption' 인데, '붕괴' 보다는 '균열'이라는 번역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바로 이런 문제의 식에서 문명의 흐름을 진단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 중심개념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눈앞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전체의 질서를 형성하려는 의지와 능력 또는 집단적 정서라고 풀이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지난 몇십년 동안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후쿠야마의 진단이다.

범죄가 증가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자본의 원초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가정이 해체되면서 사회가 떠안아야 할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거기에는 노조 등의 전통적인 결사체가 구심력이 약화되고 국가 권력 등 기존의 권위체계가 흔들리며 공동체적인 규범을 제공하던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 등이 맞물린다. 그렇듯 개체화를 억제하던 장치들은 느슨해지는 반면, 개개인의 선택지는 넓어지고 독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 여건, 피임약,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행동 변경 및 접촉 범위의 확대 등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

### 개인과의 삶 속에 '이성' 복원시켜야

그러나 사람들은 완전히 개체로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만 자기의 취향이나 삶의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우 폐쇄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고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사회적 자본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서는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인간은 사회적 자본을 재충전할 수 있을까? 후쿠야마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과 이성적인 능력에 기대를 건다. 그리고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형성돼온 협동의 게임 룰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 책은, 근대사회 이후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꾸준히 증가돼왔고 탈산업사회 단계에 접어들어 더욱 증폭돼 급기야 사회 전체의 대대적인 균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문명의 흐름을 진단하고 사회를 재건할 희망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은이는 '이성'의 복원을 통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폐적 응집력과 맹목적인 집단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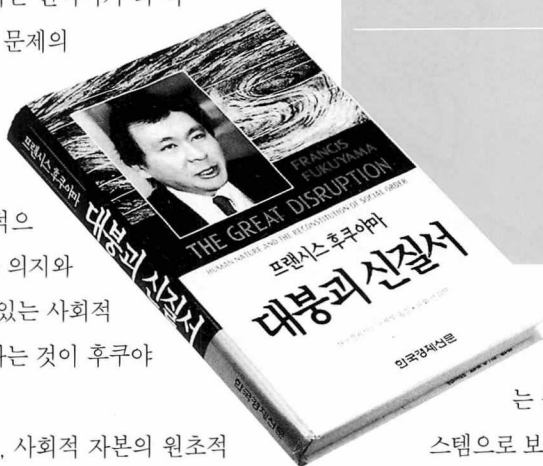
책갈피 산책

## 《대붕괴 신질서》

고갈된 '사회적 자본' 회생시킬 대안 탐색해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 |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옮김  
한국경제신문/A5신/448면/16,000원

김찬호 |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는 네트워크 사회가 이런 시나리오가 새로운 버전으로 씌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 듯하다. 물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위계적 시스템으로 보완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한국은 어떤가. 후쿠야마는 다른 산업 국가에 비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의 정도가 훨씬 덜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한가지 비결로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 속에 가정이 급격히 해체되고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어른과 체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인구마저 급감해 출산을 장려해야 할 판이다. 이런 충격을 감당할 사회적 내공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 사회의 신뢰는 친족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후쿠야마는 《트러스트》(한국경제신문)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가정의 파편화를 포함한 지금의 난국은 그나마 남아 있던 사회적 자본마저 완전히 고갈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차원에서 유대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과의 삶 속에서 '이성'의 위치를 복원하면서 자폐적인 응집력과 맹목적인 집단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

김찬호씨는 연세대 대학원(사회학)을 졸업했고, 연세대 사회학과에 출강한다. 저서 《여백의 질서》 《사회를 보는 논리》 《일본 대중문화론》 등이 있다.